

지역문화 생태계의 진화적 지속가능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 구조 재편: 공립과 민간의 비대칭성 해소 및 안정적 재정 지원 모델을 중심으로

1. 서론: 문화적 단일 경작의 위험과 생물 다양성의 교훈

1.1. 지속가능성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다양성

현대 사회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환경과 경제를 넘어 문화 예술 분야의 가장 시급한 화두로 부상했다. 지역예술의 지속가능성을 논함에 있어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양성(Diversity)'의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자연 생태계에서 생물 다양성(Biodiversity)이 결여된 환경, 즉 단일 경작(Monoculture)이 이루어지는 곳은 병충해나 기후 변화와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하여 전멸할 위험이 크다. 반면, 다양한 종이 공존하는 생태계는 상호 작용을 통해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유지하며 진화적 생존을 이어간다.¹

예술의 영역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은 획일적인 문화예술은 시대의 급변하는 흐름과 시민들의 다변화된 기호에 대응하지 못하고 소멸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획일화된 문화 토양에서는 그 다음 세대를 이어받을 창조적 맹아(Sprout), 즉 새로운 예술적 시도와 혁신적인 장르가 자라나지 못한다. "다양하지 못함의 문제는 곧 지속할 수 없음"이라는 명제는 문화 정책 입안자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경고다. 현재 우리 지역의 예술 생태계는 공공 주도의 대규모 행사나 특정 장르에 편중된 지원으로 인해 '문화적 유전자'가 단순화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문화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신호이다.³

1.2. 지역예술 생태계의 이중적 위기

지역예술 생태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진단할 수 있다. 첫째는 예술적 다양성의 상실이며, 둘째는 자생 불가능한 생태계 구조의 고착화이다. 현재 지역예술은 관(官)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종속되어 있어, 관의 지원 없이는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한 '화분 속의 식물'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자생할 수 있는 지역예술 생태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지역예술은 고사할 수밖에 없으며, 관에 종속되는 경우 예술은 그 본연의 야성과 풍부함을 잃고 단종의 길을 걷게 된다.

예술은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중요한 사회적 산물이며, 문화 발전의 핵심 요소이다. 다양한 예술적 표현이 공존해야 사회는 더 풍요로워지고 창의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현재의 공립예술단과 민간예술단의 운영 및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함을 주장한다. 특히, 공립예술단에 대한 지원의 당위성은 역사적으로 인정받아 온 반면, 민간 예술단체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 특히 경상비(Operating Expenses) 지원의 당위성은 간과되어 온 정책적 불균형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예술이 '단종'되지 않고 '풍요로운 숲'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지역예술 진단: '벽돌 담장' 이론의 적용

2.1. 문화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상동성

생태학자들은 생태계의 건강성을 설명할 때 종종 '벽돌 담장(Bricks in a wall)'의 유비(Analogy)를 사용한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생물 종을 벽돌로 간주할 때, 몇 개의 벽돌이 빠져도 담장은 담장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임계점을 넘어 다수의 벽돌이 제거되면, 담장 전체의 구조적 무결성이 훼손되어 작은 진동에도 붕괴하고 만다.⁴

지역 문화 생태계에서 대규모 공립예술단이나 유명한 예술가들은 담장을 지탱하는 큰 기둥일 수 있다. 그러나 담장의 면을 채우고 서로를 연결하는 수많은 작은 벽돌들, 즉 소규모 민간 극단, 실험적인 무용 단체, 인디 뮤지션, 거리의 예술가들이 사라진다면 그 생태계는 붕괴한다. 현재 지역 예술 정책은 큰 기둥(공립예술단)을 세우는 데에만 예산의 대부분을 투입하고, 벽돌(민간 예술단체)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이는 "모든 부품을 유지하는 것이 지적 조작의 첫 번째 규칙(To keep every cog and wheel is the first precaution of intelligent tinkering)"이라는 알도 레오폴드(Aldo Leopold)의 생태 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⁴

2.2. 획일화와 진화적 생존 불가능성

생물학적 진화는 유전적 다양성(Genetic Diversity)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환경이 변화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형질을 가진 개체가 존재해야 종 전체가 멸종하지 않는다. 예술 생태계에서도 '다양성'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보험이다. 디지털 매체의 발달, 인구 구조의 변화, 팬데믹과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획일화된 공공 예술 시스템은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반면, 다양한 형태와 규모, 장르의 민간 예술단체들이 존재한다면 그중 일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새로운 예술 형식을 창조해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 체계는 '심사하기 쉬운', '성과가 명확한', '대중적인' 예술만을 선별하여 지원함으로써 다양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 이는 자연 선택이 아닌 '인위적 선택'에 의한 생태계 교란이며, 결과적으로 지역 예술의 유전자 풀(Gene Pool)을 빈약하게 만들어 다음 세대로 이어질 맹아를 짓밟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양성이 없는 집단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진화론적 진실은 예술계에도 유효하다.

3. 공공과 민간의 구조적 비대칭성 분석

지역예술 생태계의 황폐화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극심한 자원 배분의 불균형에서 기인한다. 공립예술단은 '안정성'을 독점하는 반면, 민간 예술단체는 '불안정성'을 전가받고 있다.

3.1. 공립예술단의 딜레마: 안정성 뒤에 숨은 비효율과 관료화

공립예술단(시립·도립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등)은 지난 수십 년간 지역 문화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들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운영되므로 재정적 불안정성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안정성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다.

3.1.1.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방만 경영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공립예술단은 시장의 경쟁 원리에서 벗어나 있기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추구할 유인이 부족하다. 운영비와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지급되지만, 그에 상응하는 예술적 성과나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사례에서는 공공 자금이 방만하게 사용되어 운영 목적이 흐려지기도 하며, 이는 납세자인 시민들의 효능감을 저하시킨다. 인천시립예술단의 경우,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공연 횟수나 관객 접근성 측면에서 투입 대비 효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⁵

3.1.2. 관료적 규제와 예술적 도전 정신의 약화

공립예술단은 행정 조직의 일부로 간주되거나 공공기관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관료화된다. 인천시의 사례에서 보듯, 시립예술단의 운영 주체를 시 직영에서 문화재단 위탁으로 변경하려는 논의 과정에서 예술적 비전보다는 노조의 고용 안정 요구와 행정적 편의성이 충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⁶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예술가들은 창작의 자유보다는 행정적 절차 준수와 규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된다. 안정된 신분 보장은 예술적 안주를 낳고,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도전보다는 '안전한' 레퍼토리의 반복을 선호하게 만든다. 이는 결국 예술 생태계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3.1.3. '구축 효과(Crowding-out)'의 발생

경제학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이 민간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가 문화 예술계에서도 나타난다. 한정된 지역 문화 예산의 70~80% 이상이 소수의 공립예술단 유지비로 고정 지출됨으로써, 다수의 민간 예술단체가 나누어 가져야 할 파이가 극도로 줄어든다. 이는 민간 예술 영역의 성장을 구조적으로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고 있다.⁸

3.2. 민간 예술단체의 현실: 프로젝트 수주의 늪과 고사 위기

반면, 민간 예술단체들은 야생의 정글에 방치되어 있다. 이들은 자생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3.2.1. 재정적 불안정과 상업적 획일화의 강요

민간예술단체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 끊임없이 공모사업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단발성 '프로젝트' 지원에 그치며, 단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인건비나 임대료 등 경상비 지원은 철저히 배제된다. 이러한 구조는 예술적 다양성을 저해한다. 생존이 급한 단체들은 심사위원들의 취향이나 공공기관의 정책 목표(예: 특정 주제의 공연, 축제용 퍼포먼스 등)에 맞는 작품만을 생산하게 된다.⁹ 이는 예술가 본연의 독창성을 말살하고, 특정 상업적 취향이나 관변 예술에 치우친 결과를 강요하게 된다.

3.2.2. 인적 자원의 유출과 단절

민간 예술단체가 자생력을 잃으면, 지역의 유능한 예술가들은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을 찾거나 기회가 더 많은 수도권으로 떠나게 된다. 이는 지역 예술 생태계의 허리를 끊어놓는 결과를

초래한다. 청년 예술가들이 성장하여 중견 예술가가 되고, 다시 후배를 양성하는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는 것이다. 2025년도 인천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 등의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청년 예술가 지원과 신진 예술가 지원 트랙이 존재하지만, 이들이 중견 단체로 성장했을 때 이를 뒷받침할 '허리 단계'의 지원, 특히 조직 운영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¹⁰

4.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경상비' 지원과 '사람' 중심의 투자

민간 예술단체의 자립을 돕는 지원 체계가 절실하다. 단순히 공모사업의 개수를 늘리거나 창작 공간을 일시적으로 대여해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예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 자금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정책, 즉 공립예술단에 편중된 자원을 민간으로 과감히 이양하고, 민간 예술단체가 하나의 안정적인 '직장'이자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정적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4.1. 공공 지원의 역사적 편향성과 인식의 전환

지금까지 한국의 예술 정책은 민간 예술단체의 운영비(경상비) 지원에 인색했다. 공립예술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당연시하면서도, 민간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특혜 시비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우려하여 기피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통예술의 보존과 유지는 공공적 당위성을 가진다는 과거의 사고방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국공립 전통예술단이나 무형문화재 전승 단체에는 운영비 성격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현대 예술을 하는 민간 단체는 이러한 혜택에서 배제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문화예술의 다양성 자체가 중요한 공공재(Public Good)로 인식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이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면서 민간 예술단의 역할이 재조명받고 있다. 민간 예술단은 지역 곳곳에서 공립예술단이 채우지 못하는 미세한 문화적 틈새를 메우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지역 문화의 지평을 넓히는 주체다. 따라서 민간예술단이 지속가능한 '생산 기지'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양성화해야 한다.

4.2. 해외 사례 분석: 프랑스 '앙떼르미땅(Intermittents du spectacle)' 모델의 시사점

민간 예술인의 안정적 활동을 보장하는 해외의 선진 사례로서 프랑스의 '앙떼르미땅' 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 제도는 공연예술 분야의 비정규직 예술가와 기술 스태프가 겪는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된 실업보험 시스템이다.

4.2.1. 제도적 메커니즘과 효과

앙떼르미땅 제도는 예술 활동이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지며 필연적으로 실업 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제도적으로 인정한다. 예술가나 스태프가 12개월(또는 10개월) 내에 507시간 이상의 노동 시간을 증명하면, 정부는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실업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전해 준다.¹² 이는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이 없는 기간에도 생계 위협 없이 다음 창작을 준비하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제공한다.

- 자격 요건: 507시간의 노동 실적(약 3개월 분량의 집중 노동)
- 핵심 가치: 비활동 기간도 창작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Research & Development)으로

인정.¹⁴

- **결과:** 예술가들은 상업적 성공에 대한 압박을 덜 받으면서 실험적이고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프랑스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¹⁵

4.2.2. 국내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한국에서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프로젝트 계약 건별로 적용되거나 근로자성을 엄격히 따지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¹² 민간 예술단체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앙페르미땅처럼 예술 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프로젝트 사이의 공백기를 '실업'이 아닌 '창작 준비기'로 규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는 개별 예술가뿐만 아니라 민간 예술단체가 안정적으로 단원을 유지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5. 구체적 실행 방안: 민간 예술단체 중심의 생태계 재편 전략

지역예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안을 제안한다.

5.1. 중앙 모델의 지역화: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사업'의 확대 운영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은 민간 예술단체의 규모화와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매우 유효한 모델이다. 이 사업을 중앙 주도가 아닌 지자체 주도로 확대 재편해야 한다.

5.1.1. 사업의 구조와 의의

202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역의 민간 예술단체(연극, 무용, 음악, 전통 등) 중 역량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연간 2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국비+지방비)을 지원한다.¹⁷ 이는 기존의 '쪼개기 식' 소액 지원에서 탈피하여, 민간 단체도 공립예술단에 버금가는 예산과 조직을 갖추고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인천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이 공모에 참여하여 지역 예술단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¹⁸

5.1.2. 지원 내용의 획기적 개선: 운영비 및 인건비 허용

이 모델이 지역 예술 생태계의 체질을 바꾸려면, 지원금의 용도 제한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 **안정적 재정 지원:** 공립예술단의 운영비 지원을 인정하듯, 선정된 민간 대표 예술단체에게는 사업비 외에 단체 운영을 위한 고정 비용(임대료, 행정 간사 급여, 대표자 급여 일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²⁰
- **고용 창출:** 지원금을 통해 '시즌 단원'이나 '프로젝트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가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공립예술단의 단원 채용이 가진 경직성을 보완하는 유연한 고용 모델이 될 것이다.

5.2. 공립예술단의 '플랫폼화'와 민간 협력 강화

공립예술단은 직접 공연을 제작하는 플레이어(Player) 역할을 넘어, 지역 예술 생태계를 지원하는 플랫폼(Platform)으로 진화해야 한다. 하나의 단일한 예술단체에 올인하는 것은 문화예술 생태계를 황폐화할 수 있다.

- **자원 공유:** 공립예술단이 보유한 연습실, 무대 장비, 의상실, 악기 등을 민간 예술단체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공동 제작 및 인큐베이팅:** 공립예술단의 정기 공연에 민간 예술단체를 파트너로 참여시키거나, 유망한 민간 단체를 산하에 '상주단체'로 입주시여 멘토링과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공립예술단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수혈받는 상생 방안이다.
- **민간 위탁 및 운영 혁신:** 인천시립예술단 사례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공공 예술단의 운영을 민간 전문가나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관료주의를 탈피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단, 이 과정에서 구성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예술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⁶

5.3. 다양성 지표 도입 및 다년 지원(Multi-year Support) 정착

단기 성과 위주의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예술적 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 **다양성 쿼터제:** 지원사업 선정 시 상업성은 낮으나 예술적 가치가 높은 실험 예술, 비인기 장르, 신진 예술가 그룹에 일정 비율의 예산을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한다.
- **다년 지원의 보편화:** 인천문화재단이나 경기문화재단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집중지원(다년)' 트랙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¹⁰ 매년 사업계획서를 쓰고 정산하는 행정 소모전에서 벗어나, 3~5년의 중장기 계획 하에 단체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레퍼토리를 심화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속연주지원' 사업처럼 평가를 통해 연속 지원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²¹

6. 결론: 균형 잡힌 지원 정책이 만드는 풍요로운 미래

지역예술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결국 ****다양성의 회복****과 ****자생적 생태계 구축****으로 귀결된다. 우리는 생물 다양성이 생존의 필수 조건임을 생태학에서 배웠듯, 예술적 다양성이 지역 사회의 소멸을 막고 진화적 생존을 가능케 하는 핵심 기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공립예술단은 그동안 지역 문화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나, 이제는 그 역할과 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안정성에 안주하여 비효율을 초래하고 예산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예술단체와 공존하고 협력하는 생태계의 '허브'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정책의 무게중심은 다수의 민간 예술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로 이동해야 한다.

지금까지 민간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시혜적이거나 보조적인 수단에 머물렀다. 이제는 민간 예술단체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과 ****경상비 지원****이 공립예술단 지원 못지않은 공공적 당위성을 가짐을 인정해야 한다. 중앙 정부의 지역대표예술단 육성 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확대하고, 프랑스의 앙떼르미땅 제도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지역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다양한 예술적 표현이 공존하는 사회, 민간 예술단체가 재정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창의적인 도전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균형을 이루며 상호 보완하는 생태계.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역 예술의 미래이다. 이러한 균형 잡힌 지원 정책이야말로 문화적 다양성을 풍성하게 만들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예술적 맹아를 틔우는 유일한 길이다. 다양성이 없는 집단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진실을 되새기며, 지금 바로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

주요 데이터 및 비교 분석

아래 표는 현재의 불균형한 지원 구조와 개선 방향을 요약한 것이다.

구분	공립예술단 (현재)	민간 예술단체 (현재)	민간 예술단체 (개선 방향)
재정 기반	지방비 100% (인건비, 운영비 포함)	공모사업 프로젝트비 의존 (불안정)	운영비(경상비) 포함 다년 지원 확대
인력 구조	정규직 위주 (고용 경직성)	비정규직, 프로젝트별 계약 (고용 불안)	시즌 단원제, 양떼프리마켓형 소득 보전
주요 역할	기초예술 보존, 대규모 공연	창작 실험, 다양성 확보 (그러나 상업화 압박)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예술적 진화 주도
운영 효율	낮음 (관료적, 방만 운영 위험)	높음 (생존을 위한 치열한 효율 추구)	안정성을 더하여 창의적 효율 극대화
정책 목표	안정적 공급	단건 성과 산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및 종 다양성 확보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으나, 공공 자금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민간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의 키(Key)를 돌리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참고 자료

1. 2월 2, 2026에 액세스, <https://www.emerald.com/jchmsd/article/2/2/153/195947/Analogies-and-links-between-cultural-and#:~:text=Metaphorical%20parallels%20between%20biodiversity%20and,such%20as%20language%20and%20music.>
2. Biodiversity Analogy → Term - Lifestyle → Sustainability Directory, 2월 2, 2026에 액세스, <https://lifestyle.sustainability-directory.com/term/biodiversity-analogy/>
3. Cr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Cultural diversity and biodiversity: a tempting analogy, 2월 2, 2026에 액세스, https://pluto.huji.ac.il/~msheyd/files/cultural_diversity.pdf
4. Biodiversity and Ecosystem Management - Oklahoma State University Extension, 2월 2, 2026에 액세스, <https://extension.okstate.edu/fact-sheets/biodiversity-and-ecosystem-management.html>
5. 인천시립예술단무엇이문제인가-1.현황과 문제점, 2월 2, 2026에 액세스,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330>
6. "시립예술단 위탁 운영 반대"... 공공성 훼손 '우려' - YouTube, 2월 2, 2026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c6W7V06BXi0>
7. 예술단노조, 인천시립예술단 문화재단 위탁 결사 반대...직속 편재로 ..., 2월 2,

- 2026에 액세스,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730>
8. 일반논문 : 외부의 재정지원이 조직운영에 미치는 영향: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민간기부금을 중심으로 | Semantic Scholar, 2월 2, 2026에 액세스,
<https://www.semanticscholar.org/paper/%EC%9D%BC%EB%B0%98%EB%85%BC%EB%AC%B8-%3A-%EC%99%B8%EB%B6%80%EC%9D%98-%EC%9E%AC%EC%A0%95%EC%A7%80%EC%9B%90%EC%9D%B4-%EC%A1%B0%EC%A7%81%EC%9A%B4%EC%98%81%EC%97%90-%EB%AF%B8%EC%B9%98%EB%8A%94-%EC%98%81%ED%96%A5%3A-%EB%AC%B8%ED%99%94%EC%98%88%EC%88%A0%EB%8B%A8%EC%B2%B4%EC%97%90-%EB%8C%80%ED%95%9C-%EC%A4%91%EC%8B%AC%EC%9C%BC%EB%A1%9C-%EC%A0%95%EA%B4%91%ED%98%B8/7558386b23fa5a2779538df7412baf50d6e4059>
 9. Untitled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2월 2, 2026에 액세스,
https://dgfca.or.kr/pdf/1.%202025%20%EC%A7%80%EC%97%AD%EB%AC%B8%ED%99%94%EC%98%88%EC%88%A0%EC%A7%80%EC%9B%90%EC%82%AC%EC%97%85%20%EC%A7%80%EC%9B%90%EA%B0%80%EC%9D%B4%EB%93%9C_%EC%88%98%EC%A0%95%EC%B5%9C%EC%A2%85.pdf
 10. 2025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 공모안내, 2월 2, 2026에 액세스,
<https://archivist.kr/biz?i=1734066382>
 11. [경기문화재단] 2025 경기예술지원 공모 공고 종료까지 -342일, 2월 2, 2026에 액세스,
<https://archivist.kr/biz?i=1736738099>
 12. 프랑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_엥떼르미땅 - 쫘매난 예술가 - 티스토리, 2월 2, 2026에 액세스,
<https://artistmikaroh.tistory.com/6>
 13. Intermittents du Spectacle: a special status - EventSoft, 2월 2, 2026에 액세스,
<https://www.eventsoft.fr/en/intermittents-du-spectacle-a-special-status/>
 14. The art of managing the intermittent artist status in France - ETUI, 2월 2, 2026에 액세스,
<https://www.etui.org/publications/art-managing-intermittent-artist-status-france>
 15. The status and working conditions of artists and cultural and creative professionals, Final report - European Commission, 2월 2, 2026에 액세스,
<https://ec.europa.eu/assets/eac/culture/docs/eenc/eenc-2020-status%20and%20working%20conditions%20of%20artists-final%20report.pdf>
 16.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 개선 연구 - JEJU Repository - 제주대학교, 2월 2, 2026에 액세스,
<https://mslib.jejunu.ac.kr/handle/2020.oak/23389>
 17. 2025년 문체부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공모」 시행 절차 공고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2월 2, 2026에 액세스,
<https://dgfca.or.kr/article/INFORM/detail/11546>
 18. 2025년 문체부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공모 시행 절차 공고 - 인천광역시, 2월 2, 2026에 액세스,
<https://announce.incheon.go.kr/citynet/jsp/sap/SAPGosiBizProcess.do?command=searchDetail&flag=gosiGL&svp=Y&sid=ic&sno=56964&gosiGbn=A>
 19. 2025년 지역예술 이끌어 갈 공연예술단체 32개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 2월 2, 2026에 액세스,
[https://www.mcst.go.kr/servlets/eduport/front/upload/UplDownloadFile?pFileName=\(0108\)%EB%AC%B8%EC%B2%B4%EB%B6%80%EB%B3%B4%EB%8F%84%EC](https://www.mcst.go.kr/servlets/eduport/front/upload/UplDownloadFile?pFileName=(0108)%EB%AC%B8%EC%B2%B4%EB%B6%80%EB%B3%B4%EB%8F%84%EC)

[%9E%90%EB%A3%8C-2025%EB%85%84_%EC%A7%80%EC%97%AD%EB%8C%80%ED%91%9C_%EC%98%88%EC%88%A0%EB%8B%A8%EC%B2%B4_%EC%A7%80%EC%9B%90%EC%82%AC%EC%97%85_%EA%B3%B5%EB%AA%A8_%EA%B2%B0%EA%B3%BC.pdf&pRealName=20250108082954931420637930_PRESS20250108082954035936.pdf&pPath=0302000000](#)

20. [붙임2] 2025년도 공연장예술단체육성지원 추가 공고 지원신청서(양식).hwp - :
원주문화재단, 2월 2, 2026에 액세스,

<https://www.wcf.or.kr/cgi/filedown.php?idx=16588>

21. 2023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 - 공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월 2,
2026에 액세스, <https://arko.or.kr/board/view/4013?bid=463&page=&cid=1805068>